

나 讀書에 忠實하고 어떻게 讀書을 하고 있는가는 —— 調査해 보지 않는限 어떻게 推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公務員이 讀書할 수 있는 條件—특히 그 施設이 어떤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各 官公署 實情을 볼 때 이렇다 할만한 職場圖書室을 꾸미고 있는게 果然 얼마나 될지 疑問이 아닐 수 없습니다. 敎養部門에 關한 書籍까지 網羅하여 所屬 公務員들로 하여금 그들의 온갖 讀書 意慾을 充足시켜 줄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까만 最少限 그 機關에서 必要로 하는 專門書籍乃至 參考 文獻이라도 具備된 圖書室이 高루 마련된다면 이 얼마나 多幸이겠습니까.

아무리 讀書에 대한 意慾이 크고 또한 讀書할 수 있는 時間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俸給만한 生活難에 허덕이고 있는 公務員들에게 修養圖書아닌 값

비싼 專門書籍까지 사서 보게함은 너무나 無理한 일이며 이러한 施設은 依例히 그 機關에서 차려야 함이 마땅할 뿐더러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圖書施設이 차츰 新設·完備되어 비록 公務員에 대한 經濟的 保障은 위로 미루더라도 그들에게 마음의 糧食이나마 부어 줄 수 있다면 이는 오늘날 매마른 公務員들의 生活를 한결 부드럽고 明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行政能力을 昂揚함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十月달은 「文化의 달」 그리고 讀書週間이 國民運動의 하나로 展開되는 讀書의 季節입니다. 이 때에 우리 公務員이 보다 더 冊을 벗 삼고 職務를 즐기는 習慣이 몸에 배도록 서로 서로의 創意와 實踐이 倍加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筆者 文敎部社會敎育課事務官)

## 國會議員과 讀書

任 石 宰

國會議員과 讀書이라고 하면 껍이나 因緣이 많은 것 같지만 別로 그렇지 못하다. 國會圖書館을 訪問하는 손님들이면 例外 없이 議員들의 圖書館 利用 狀況을 묻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利用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對答을 하면서도 무엇인지 주저해질 때가 있다. 議員들 중에 圖書館을 利用하는 분이 別로 많지 않다는 理由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議員들의 職務가 方法乃至는 重要 國策決定等 政治的인 活動에 있으며 學生과 같이 學業을 닦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

둘째 議員들은 職務上 特別히 對人關係活動에 있어서 多忙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議員中 大多數는 一段의 基礎的인 學問은 履修한 분으로서 政治的 社會的인 活動이 이미 實踐的 段階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네째 議員들中에는 그의 個人藏書를 많이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圖書館利用의 必要가 없다는 것.

다섯째 一部 議員들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不足과 倦怠에서 利用을 잘 않는 것.

여섯째 圖書館의 物的 人的 施設 不足으로 利用上 많은 不便을 느끼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以上 몇가지 中에도 첫째와 둘째 그리고 여섯째 理由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國會議員들中 圖書館을 利用하여 讀書하는 분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當然한 對答을 하면서도 주저해 지는 心理는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다시 이렇게 생각된다. 以上에 列擧한 모든 理由는 國會議員들의 立場과 國會圖書館의 事情인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一般國民의 立場에서 國會議員에게 期待하고 要望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新生國家의 山積한 法的 整備과 國務의 迅速한 處理로 早速時日內에 國民生活의 安定을 가져 오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先進外國의 좋은 制度, 先例, 統計等 健全한 資料를 調査研究하여 우리들의 現實위에 調和 適應시킴으로써 朝令暮改式의 法律이나 架空의 政策樹立으로 國民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上記 네개 理由만을 除外하고는 그 모두를 克服하고 超越하여 大學學生으로서의 修學이 아니라 最高實踐政治學部人으로서의 修學이 必要한 것이 아닐가 한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國會圖書館을 찾아오는 손님들 앞에선 自身도 모르게 國會議員 立場을 代身해서 세삼스러이 未安 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여섯째의 理由인 圖書館의 施設不足이란 여러가지 理由中의 理由기 때문에 좀더 言及해보려 한다. 根本問題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도할수 있다. 物質 施設의 不足으로 찾는 資料가 없다는가 利用할 施設이 不便하다면 不快한것은 勿論이지만 人的 施設의 不足으로 因하여

奉仕職員의 不親切과 資料索出의 時間遲延等은 圖書館에 對한 興味를 喪失시키고 만다. 이러한 結果 影響은 國家의 立法活動 및 基本政策에 까지 미치는 것을 생각 할때 簡單히 넘길 問題는 아니다. 이런點은 根本的인 制度面에 反映시켜야 할 것이며 國會圖書館은 一般性外에 그 特殊性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것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卽 一般性은 一般 圖書館의 機能과 同一한 것이지만 여기에 特殊性이라함은 國會議員에 對한 特別奉仕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위에 列擧하였던 모든 理由는 이 特殊性의 發揮로써 카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激動하는 政治現象과 複雜한 外交問題를 다루는 마당에 國會議員이 圖書館 閱覽室에 나타나 讀書를 한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國會議員이란 職務와 關聯하여 지나치게 要望한다는 것은 하나의 時代錯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國會圖書館의 奉仕는 最少限 國會議員에 對해서라도 積極的인 奉仕가 絶對 必要한 것이다. 卽 어떠한 立法問題 또는 政策問題가 나온 경우에는 勿論 나을것을 豫想하고 關係資料의 蒐集 索出 調査乃至는 研究되어 하나의 整理된 參考資料로서 議員들의 要求에 依하여 또는 要求될것을 豫想하고 미리 印刷(또는 油印)하여 配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職務를 擔當하는 것으로 美國國會圖書館의 立法 參考局,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의 法制 및 立法考查局等の 例를 들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制度的인 機構의 確立이 要望됨은 勿論 그러한 機構가 國會圖書館의 中心的 機構가 되어야 한다. 書架에 책을 備置해놓고 閱覽室을 만들어 놓았으니 책을 읽고 싶은 분은 보라는 式的 消極的

이 아닌것 卽 資料를 蒐集하여 議員들 앞  
에 積極的으로 提供하는 奉仕야말로 참다  
운 國會圖書館의 奉仕가 될것이다. 그런  
點에서 國會圖書館은 物的施設도 必要하  
지만 尤大하고 有能한 人的施設 이것이  
國會圖書館의 運命을 左右하는 關鍵이라  
고 力說하고 싶은 것이다. 이에 關하여는  
現在 民議院事務處에 法制調查局이 있는데  
同局下에 二課가 있고 其中 一課가 法制  
調査課이라 이課에서 現在하고 있는 職務  
의 一部는 立法參考資料의 提供이다. 筆  
者는 過去 이 法制調査課에서 三年餘 勤  
務한바있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資料가 立  
法活動에 直接間接으로 參考가되는 것을  
볼때 議員들 여러분이 閱覽席에 나와서  
資料를 뒤적어리고 讀書를 하는것 보다도  
그以上 痛快함을 禁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立法調査機構가 現在の  
國會圖書館에는 缺如되어 있으며 法制調  
查局의 그것도 制度的으로나 實際的으로  
充分히 確立된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圖

書館施設이 擴充될때까지는 國會議員 여  
러분自身들이 施設不足인 圖書館이나  
積極的으로 利用하는 道理밖에 없다. 그  
러나 圖書館에 나타나는 議員數는 極少數  
이다. 大綱의 事情은 이렇하다. 結論의으  
로 말하면 國會議員과 讀書라고하면 密接  
不可分의 因緣이 있는듯 하지만 圖書館과  
는 거의 無緣狀態에 있는 實情이니 아마  
讀書는 딴 곳에서들 하시는듯하다. 그러  
나 그런분들 中에서는 圖書館無用打승도  
들올수 있는데 自身이 利用하지 않는 圖  
書館이라고해서 없앨 必要까지 있어야하  
는지는 잘모르겠다. 그런가하면 反面에는  
學生以上으로 꾸준히 工夫하는 議員들이  
있는데 언제나 마음 든든하다. 바람과 달  
이 같이 맑은 燈火可親의 季單, 더구나  
讀書週間을 맞이할때면 議員閱覽席이 단  
한번단이라도 滿員이 채웠으면하는 생각  
도하여 본다.

(筆者 國會圖書館圖書課長)

## 銀行員과 讀書

李 俊 永

— 책이야 말로 우리들의  
마지막 벗이며 이들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우리들이 늙는다  
맞하지도 않는다 —

<에밀·파게>

現代社會가 發展됨에 따라 모든 社會的  
領域은 多樣性을 띠게 되고 職業도 多岐  
的으로 分業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分

화된 職業別에 따라 흔히 人間을, 固有名詞  
化하고 그 職業的 機能과 性格에 따라 人  
間型을 判斷하려는 傾向이 慣習化되어 버  
렸다. 말하자면 「銀行員」이라는 稱號이  
붙은 人間도 그 等屬의 하나이며 세상 사  
람들이 銀行員을 가리켜 꼼꼼하다느니 打  
算的이라느니 골셋님이라느니 하여 一律  
的으로 規定지우는 것도 銀行業務自體가  
緻密正確성과 打算性을 要求하기 때문이  
다. 이런 꼼꼼쟁이 打算家 골셋님들은 都